

INTERNAL STRUCTURE OF KOREAN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Pirmatova Xurshida Husan qizi

Lingvistika: koreys tili mutaxassisligi 2-bosqich magistranti

O'zbekiston davlat jahon tillari universiteti

E-mail: Khurshchida.pirmatova@mail.ru

Annot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word formation in terms of internal structure for Korean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People use language to express and exchange their feelings and emotions. At this time,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are the ones that express emotions or emotions more delicately and effectively. In other words, people can live a richer language life through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In particular, compared to other languages,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are very developed in Korean. In addition, you can see that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are used in many areas other than conversations in everyday life.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can accurately and realistically express the contents of the news even in a short form, so it can be seen that it is often used as a news title.

Keywords: Korean, onomatopoeia, mimetic words, internal structure of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word formation of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single morpheme, stem and root.

들어가며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고 그것을 교류한다. 이때 감정이나 정서를 좀 더 섬세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의성어·의태어이다. 즉, 사람들은 의성어·의태어를 통해 더 풍요로운 언어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다른 언어에 비하여 한국어는 의성어·의태어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의성어·의태어가 일상생활 속의 대화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의성어·의태어가 짧은 형태로도 뉴스의 내용을 정확하고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의 제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같은 맥락으로 광고 또는 대중가요, 텔레비전 자막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의성어는 ‘사람이나 동물이 내는 소리나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흉내 낸 말’로 이해할 수 있고 의태어는 의성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리를 제외한 인간이나 사물의 모양, 태도, 행동 또는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의태어는 인간의 오감 가운데 청각을 제외한 시각, 미각, 후각, 촉각에 의하여 모방한 단어들을 모두 가리킨다.

본고는 한국어 의성어와 의태어를 대상으로 내적 구조 즉 단어 형성 과정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어·의태어의 내적 구조는 주로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의성어·의태어이고 둘째는 동사, 형용사 어간과 어근 형성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이고, 셋째는 동사, 형용사 어간과 영접사가 결합한 형태이다.

1.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의성어, 의태어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의성어, 의태어라는 것은 다음의 (1)~(4)와 같이 접미사가 결합 되지 않은 형태이면서 동사 어간의 영과생 형태도 아닌 의성어, 의태어를 말한다. 아래 예(1) 과 (2)는 각각 일음절 의성어, 의태어이며 (3)과 (4)는 이음절 형태를 이루는 의성어, 의태어이다. 이들 의성어·의태어는 문장에서 자립성이 있으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단 위인 형태소로만 구성된 의성어, 의태어이다!¹

(1) 쿵, 쟁 (2) 푹, 짹 (3) 킁킁, 졸졸 (4) 활활, 곰곰

아래의 예 (5)와 (6)은 일음절 의성어와 의태어가 문장에서 자립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예인데, (5)의 ‘쟁’과 (6)의 ‘푹’은 둘 다 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자립성이 있는 형태소 차원의 의성어·의태어라고 할 수 있다.

(5) 컵이 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6) 소식이 푹 끊어지다.

한편 위의 예 (3)과 (4)는 일음절 반복결합 형태를 지니는 의성어와 의태어이다. 이들은 일음절 의성어, 의태어가 반복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복형 형태가 돼서야 자립성을 가지게 되는 형태소 결합구조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예 (7)과 (8)은 의성어 ‘킁킁’과 의태어 ‘활활’이 문장에서 자립성을 가지는가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음절 반복형 ‘킁킁’과 ‘활활’은 단일형 형태로는 자립성을 갖지 못한다.

(7) 얼굴을 가리고 킁킁 웃다./ *킁 웃다.

(8) 난로 속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다./ *활 타오르다.

아래의 예(9), (10)은 모두 문장에서 자립성을 가지는 의성어·의태어이다.

(9) 쿵, 킁킁 (10) 반짝, 간땡간땡

¹ 박동근(1991)은 형태소를 ‘최소의 언어형식, 하나의 음성 형식에 하나의 의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Wada kotoba, 2016:8.

예 (10)의 ‘반짝’과는 달리 ‘간땡간땡’의 ‘간땡-’은 어근의 성격밖에 지니지 않기 때문에 의태어로 문장에 쓰이기 위해서는 아래의 예(12)와 같이 반복형 형태를 취해야 된다.

(11) 아이들은 고개를 반짝 들고 칠판을 쳐다보았다.

(12) 마른 잎이 간땡간땡 매달려 있다./ *간땡 매달려 있다.

이와 같이 단일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의성어·의태어는 ‘일음절 형태’, ‘일음절 반복형’, ‘이음절 형태’, ‘이음절 반복형’으로 나뉜다.²

2. 동사, 형용사 어간과 어근 형성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

동사, 형용사 어간과 결합하는 어근 형성 접미사는 주로 ‘-적’, ‘-웃’, ‘-음’을 들 수 있다. 아래의 (13)은 동사, 형용사 어간과 어근 형성 접미사의 결합으로 어떤 어근이 형성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13) ‘동사, 형용사의 어간 + 어근 형성 접미사’ 형태의 어근

원형	형성되는 어근
굽다	‘굽적-’
구기다	‘구기적-’, ‘구깃-’
뭉기다	‘뭉기적-’, ‘뭉깃-’
넓다	‘넓적-’
절다	‘절름-’
벌리다	‘벌름-

우선 어근 형성 접미사 ‘-적’에 대해 살펴보자.

[-적]

접미사 ‘-적’은 주로 동사 어간과 결합해 의태어를 형성한다. 아래의 예 (14)는 동사 어간과 접미사 ‘-적’이 결합해서 의태어를 형성한 예들이며 예 (15)는 형용사 어간과 결합한 예다.

(14) 뭉기다 – 뭉기적뭉기적,

굽다 – 굽적굽적,

구기다 – 구기적구기적

(15) 넓다 – 넓적넓적

접미사 ‘-적’은 주로 동사 어간과 결합하여 의태어를 형성하는데 예(15)처럼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사, 형용사

² Wada, kotoba.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단어 형성."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서울. 9.

어간과 접미사 ‘-적’이 결합해서 형성되는 의태어는 단일형이 어근의 성격밖에 지니지 않기 때문에 문장 안에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파생 접미사와 결합하거나 반복형 형태를 취해야 된다.

[-웃]

다음으로 접미사 ‘-웃’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접미사 ‘-웃’은 동사와 형용사 어간과 결합하여 의태어를 형성한다. 아래의 예는 모두 동사, 형용사 어간과 접미사 ‘-웃’이 결합한 것들이다. 접미사 ‘-웃’은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어간과도 자주 결합한다. (16), (17)은 모두 형용사 어간과 접미사 ‘-웃’이 결합한 예들이며 (18)은 동사 어간과 결합한 예다.

(16) 검다 - 거뭇거뭇, 붉다 - 불긋불긋

(17) 느리다 - 느릿느릿

(18) 기울다 - 기웃기웃, 오글다 - 오긋오긋

위의 예(16)과 (17)은 형용사 어간과 ‘-웃’이 결합한 예들이며 (18)은 동사 어간과 ‘-웃’이 결합한 예들인데, (16), (18)처럼 어간이 받침을 동반하는 경우와 (17)처럼 어간이 받침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결합 후 형태가 다르다.

다음으로 동사, 형용사 어간에 접미사 ‘-웃’이 결합되어 형성된 의성어, 의태어가 그 동사, 형용사의 어간과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예(19)는 동사 ‘기울다’와 의태어 ‘기웃기웃’의 뜻풀이다.

(19) ㄱ. 기울다 - 비스듬하게 한쪽이 낮아지거나 비뚤어지다.

- 마음이나 생각 따위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다.

- 해나 달 따위가 지다.

ㄴ. 기웃기웃 - 무엇을 보려고 고개나 몸 따위를 이쪽저쪽으로

조금씩 자꾸 기울이는 모양.

-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으로 슬금슬금 자꾸

넘겨다보는 모양.

의태어 ‘기웃기웃’은 동사 ‘기울다’의 어간 ‘기울-’과 접미사 ‘-웃’이 결합해 형성된 것이다. 동사 ‘기울다’와 의태어 ‘기웃기웃’의 대조에서 접미사 ‘-웃’이 ‘조금씩 - 하는 모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예 (20)은 동사 ‘오글다’와 의태어 ‘오긋오긋’의 뜻풀이다.

(20) ㄱ. 오글다 - 물체가 안쪽으로 휘어지다.

ㄴ. 오긋오긋 - 여럿이 다 안으로 조금 오그라진 듯한 모양.

동사 ‘오글다’와 의태어 ‘오긏오긏’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접미사 ‘-웃’이 ‘조금 -한 모양’이라는 뜻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래의 다른 예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아래의 예 (21)은 형용사 ‘거뭇하다’와 ‘불긏하다’의 뜻풀이다.

(21) ㄱ. 거뭇하다 - 빛깔이 조금 검은 듯하다.

ㄴ. 불긏하다 - 조금 붉다.

예 (2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접미사 ‘-웃’은 ‘조금 -한 모양’이라는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적’과 ‘-웃’두 접미사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래의 예문은 각각 ‘구기적거리다’와 ‘구깃거리다’의 사전 뜻풀이다.

(22) ㄱ. 구기적거리다 - 구김살이 생기게 자꾸 구기다.

ㄴ. 구깃거리다 - 구김살이 생기게 함부로 자꾸 구기다.

‘구기적거리다’는 ‘자꾸 구기는 동작’을 나타내며 ‘구깃거리다’는 ‘함부로 자꾸 구기는 동작’을 나타낸다.

한편 접미사 ‘-적’과 ‘-웃’이 ‘자꾸’라는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접미사 ‘-거리-’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문은 ‘구기적구기적’과 ‘구깃구깃’의 사전 뜻풀이다.

(23) ㄱ. 구기적구기적 - 구김살이 생기게 잇따라 구기는 모양.

ㄴ. 구깃구깃 - 구김살이 생기게 자꾸 함부로 구기는 모양.

위의 뜻풀이에서도 ‘잇따라’와 ‘자꾸’³라는 말이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꾸’라는 뜻은 ‘-거리-’나 반복형 형태에 의해 더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예는 ‘몽기적거리다’와 ‘몽깃거리다’의 사전 뜻풀이다.

(24) ㄱ. 몽기적거리다 - 앉은 자리에서 움질움질 자꾸 비비대며 움직인다.

- 일을 시원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자꾸 꽤 굵뜨게 몽개다.

ㄴ. 몽깃거리다 - 제자리에서 몽개듯이 자꾸 꽤 느리게 움직인다.

위의 예문에서는 ‘몽깃거리다’가 ‘자꾸 꽤 느리게 움직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³ 둘 다 동작의 ‘반복성’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웃’이 들어간 의태어 어근은 정확히 어떤 뜻을 더해주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나 일정한 의미가 더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음']

마지막으로 접미사 ‘-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접미사 ‘-음’은 주로 동사와 형용사 어간과 결합하여 의태어를 형성하는 접미사이다. 아래의 (25)와 (26)은 모두 접미사 ‘-음’이 동사 어간과 결합한 예이며 (27)은 형용사 어간과 결합한 예이다. 아래의 예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접미사 ‘-음’은 받침 자리에 ‘ㄷ’을 동반하는 어간과 결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예들과 같이 ‘ㄷ’을 동반하는 어간과 결합하여 두 번째 음절에서 ‘-름’이 되는 경우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25) 절다 - 절름절름 (26) 벌리다 - 벌름벌름 (27) 뺨다 - 떠름떠름

그러나 이와 같이 동사, 형용사 어간과 어근 형성 접미사의 결합으로 의태어가 형성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접미사 ‘-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아래의 예문들은 각각 동사 ‘절다’와 형용사 ‘뺨다’가 접미사 ‘-음’과 결합해 의태어를 형성했을 때 형성되는 어근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28) ㄱ. 절다 -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쳐서 걸을 때에 몸을 한쪽으로 기우뚱거리다.

ㄴ. 절름절름 -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 몸이 한쪽으로 자꾸 가볍게 기우뚱하다.

(29) ㄱ. 뺨다 - 설익은 감의 것처럼 거세고 텁텁한 맛이 있다.

ㄴ. 떠름하다 - 맛이 조금 뺨다.

위의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접미사 ‘-음’과 결합 후 형성된 의태어들은 둘다 ‘조금 -하는 모양’이라는 뜻이 부여되고 있다. 즉, ‘-웃’과 마찬가지로 접미사 ‘-음’도 원래 어간에 ‘조금’이라는 뜻을 추가해 어근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⁴

2. 동사, 형용사 어간과 영접사가 결합한 형태

⁴ Wada, kotoba.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단어 형성."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서울. 15.

이은아(2001)은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중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서 파생된 영과생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아래의 (30)은 이은아(2001)가 제시한 동사 어간에서 파생된 의태어 예들이며 (31)은 형용사 어간에서 파생된 의태어의 예들이다.

(30) 동사 어간에서 파생된 의태어

까불다	까불까불
구불다	구불구불
더듬다	더듬더듬
뒹굴다	뒹굴뒹굴
부풀다	부풀부풀

(31) 형용사
파생된
의태어

헝클다	헝클헝클
흔들다	흔들흔들
시들다	시들시들
설레다	설레설레

어간에서
의성어,

거칠다	거칠거칠
둥글다	둥글둥글

위의

삐뚤다	삐뚤삐뚤
비뚤다	비뚤비뚤

예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동사 어간에서 파생된 의태어로는 ‘까불다’→‘까불까불’, ‘더듬다’→‘더듬더듬’ 등을 들 수 있으며 형용사 어간에서 파생된 의태어로는 ‘거칠다’ → ‘거칠거칠’, ‘둥글다’→‘둥글둥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3. 결론

사람들은 의성어·의태어를 통해 더 풍요로운 언어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다른 언어에 비하여 한국어는 의성어·의태어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에서 생략해도 기본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의성어·의태어를 생략하게 되면 화자의 느낌과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고 섬세한 부분들을 표현하기 어렵다. 본고는 한국어 의성어와 의태어의 내적 구조 즉 단어 형성 과정을 살펴 봤다.

참고 문헌

1. 고음람 (2010), 「 한국어 의성어·의태어 교육방안 연구 », 대불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타티아, 마나가제 (2012), 「 한국어와 그루지아어의 의성어·의태어 대조 연구 »,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3. 박미자 (2009). 「 한국어 교육을 위한 수준별 의성어·의태어 목록 연구 »,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Wada, kotoba (2016). 「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단어 형성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